<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불가능한 일>도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2.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도 자꾸 하다 보면 가능해진다.**

3. **<야심작을 쌓을 때>도 계속 무너나서 울며불며 쌓고 또 쌓았다. 그로부터 18년 후에 하나님께 야심작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야심, 자존심이 무엇이냐? <나의 보좌>가 아니냐." 하셨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필코 야심작을 쌓으셨음을 깨달았다.**

4.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니 4시 30분이었다. 씻고 나니 40분이 넘어가고, 굴에 가서 물을 마시고 <3.16 휴거기념관>까지 가니 45분이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잠언 7편을 받으니 49분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해 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다.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불가능한 일>도 하면 불가능이 없다." 하셨다.**

5. **우물쭈물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번개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

6. **<사랑>하면, 우물쭈물 망설이지 않는다. 왜? <사랑>은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실천>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7. <실천하는 목적>이 '사랑'이다. <하나님>도 '사랑'에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기필코 행하셨다. 지구가 두 쪽, 세 쪽이 나도 '한 쪽'을 가지고 기어코 행하신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8.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같이 살면 서로 성격도, 얼굴도 닮아 가듯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행하심'도 닮아야 된다. 이는 곧,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함이다.

9.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10.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마치 연애할 때 사랑하듯 해라.

11. <사랑>하면 '작은 것'도, '큰 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다.

12. 작든지, 크든지 다 사랑해라.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13.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을 다 사랑하신다. 작은 곤충까지도 사랑하신다. 한번은 하나님께 묻기를, 사람들은 벌레가 징그럽다고 하는데 왜 벌레를 만드시고, 필요 없는 배설물을 만드셨냐고 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배설물>은 '창조물에 의한 결과물'이다." 하셨다. 곧, <창조>로 인해서 나온 배설물과 같은 존재물도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징그럽고 더러운 벌레들은 '창조로 인해 나온 쓰레기'같은 것이다. 다만 그중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못 쓰는

쓰레기가 있다. 그런데 만일 이 같은 쓰레기가 안 나온다면, 마치 밥을 먹고 배설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고, 땀이나 콧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아서 존재할 수가 없다. 고로 아무리 작은 벌레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14. 작든지, 크든지 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이 '사랑' 이다.

15. 늘 '삼위와 함께 사랑' 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좋아하고 사랑하고, 같이 행하며 사는 삶이다.

16. <말씀 사랑>은 '실천' 이다.

17. <시>도 '하나님의 말씀' 이다. <하나님께서 시를 주실 때>, 그때 그 환경과 처지와 차원대로 받는다. 마치 구약과 신약과 성약이 각각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다르듯이, 또한 <산에 다 올라가서 단풍을 구경하는 사람>과 <차를 타고 가면서 단풍이 어떠한지 생각으로만 상상하는 사람>이 다르듯이 <시>도, <말씀>도 차원에 따라 다르다. 고로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시>를 주시면 자꾸 읽어 봐야 된다.

18.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깊게, 감동적으로, 충격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으니, 곧 '만물' 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책' 이다. <이론으로만 배운 자>는 '실존, 실상을 통해 배운 자' 를 따라갈 수가 없다. 실존 앞에 이론은 하나의 상상이다.

19. <실존>을 만들려면, 뛰고 달리면서 '재창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도 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만들어 놓고 가겠다고 했다. 고로 노래도, 시도, 잠언도 써서 남긴다. <솔로몬>도 왕으로서 할 것을 다 해 놓았다. 궁궐을 짓고 싶으면 궁궐을 짓고,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 사랑해 주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도 지어 주고, 그러면서 3000잠언도 받았다. 하나의 이론으로, 상상으로 했으면 이같이 못 했을 것이다. 많은 기도를 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기도를 한 만큼 '실천' 해서 얻은 것들이다.

20. <잠언>은 '하나의 문학적인 말씀'이다. 고로 하나님은 잠언을 주실 때 군더더기 없이 '한마디'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한 마디 답을 주셨으면, 그다음에는 왜 그러한 잠언을 주셨는지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이 성경도 '답'을 받으려면, '성경의 문제'가 무엇인지 많이 읽어 봐야 된다.

21. <문제>를 알면, '답'을 정확하게 안다. <문제>가 '답'이다.

22.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도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모른다. 가령 <답>이 '8'이라고 가르쳐 줬어도,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인지 모르면 답을 받아도 '문제'가 된다. <2 곱하기 4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그때는 정확히 아는 것이다.

23. <월명동 하나님의 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 선생이 영계에 갔을 때 하나님은 "여기만 오지 말고, 땅에 나의 전을 둘 테니, 그 전을 만들어라." 하셨다. 이는 '답'이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인지 몰랐다. 성경의 계시록을 보니, "나의 전을 땅에 두리라. 높은 곳에 두리라." 한 말씀에 대한 답인 것을 알고, 내가 땅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든 것이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전이다.

24. <성격 급한 사람들, 실존에 약한 사람들>은 '답'만 받으려고 한다. <답>만 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알아야 된다.

25.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는 '문제'다. <시험을 볼 때>도 먼저는 문제를 내고, 답을 쓰는 것은 그다음이다.

26. <시대 세례 요한의 전초>는 '주만을 위한 전초'가 아니다. <전체를 위한 전초>다. 고로 시대 세례 요한과 같이 전초하고, 같이 행하고 일하면서 전체가 발맞춰 가야 된다.

27. <따르는 자들>은 '시대 세례 요한'과 일체 돼서 해야 된다. <시대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서 행함으로 주의 발판이 되고, 주를 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8. <메시아>는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자와 일체 되었으니 하늘에서 난 자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백성들 가운데 대

장’ 이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고 외적인 일도, 내적인 일도 하게 하신다. 고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일체 돼서 행하면서 메시아의 권한 대행도 해 주고, 경호도 해 주고, 붙잡아 줘야 된다.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다. 그런데 예수님 때의 세례 요한은 사명을 제대로 못 했다. 제대로 했으면, ‘부메시아’로서 늘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고, 일체 되어 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인식관이 잘못돼서 예수님을 두고, “나는 폐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그를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했다. 깨달았으면 이같이 말하지 않는다. 못 깨달았기 때문이다.

29.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나는 문’ 이다.

30. 〈따르는 자들〉도 ‘하나의 세례 요한들’ 이다. 〈시대 세례 요한의 기준〉을 따라서 일체 되어 해 나가야 된다.

31. 잠언 중에 “조직해야 조진다.” 라는 잠언이 있다. 이 잠언대로 조직해서 해 나가야 된다.

32. 〈잠언〉을 그냥 읽어서는 ‘이론’에 불과하다. 백 번, 천 번 읽어도 읽으나 마나다. 자기가 말씀을 ‘생활화’해야 그 잠언이 ‘자기 잠언’이 된다.

33. 〈이론적인 지식〉은 있으나 마나다.

34. 〈실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35.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36. <사랑>은 '남녀의 이성 사랑' 만이 아니다. 미쳐서 공부하면, 그것도 '공부 사랑' 이다. <주>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쳐다보면, 그것도 '사랑' 이다.

37. <하나님적 사랑>을 가져야 된다.

38. <천국의 사랑>은 '마음과 생각' 으로 한다. 그러면 마치 육신이 이성 사랑을 하듯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이성적 사랑 세계를 나 여호와의 사랑 전체로 보느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그것은 세상 이성 사랑의 천 배, 만 배, 십만 배, 억만 배도 더 된다." 하셨다.

39.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이성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사랑의 감수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사랑하는 자를 만든다고 하니, 루시퍼는 이를 '이성 사랑' 으로 생각해서 사랑의 감수성을 타고 하와를 꾀었다.

40. <하나님적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된다.

41. <사랑>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에 대해 먼저 배워야 한다.

42. <하나님적 사랑>은 '세상 육적 사랑'이 아닌 것을 깨닫고 <주>는 루시퍼를 꺾었다. <하나님적 사랑>을 해서 시대 말씀을 넣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하와를 뺏는 데 성공했다. <세상 이성적 사랑>으로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43. <생각 뺏기>, <사상 뺏기>다.

44. <사탄>은 꾀어서 정신을 뺏어 간다. 고로 <주>는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게 만들어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령했다. 사탄이 <말씀의 근본자>는 뺏어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자는 사탄이 못 뺏어 간다.

45.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보면,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

46. <서운함 타고, 뒤처지고, 일을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다.

47. <일> 자체가 '말씀'이다. <사명을 주는 것> 자체가 '말씀'이다.

48. 사랑하면, '말씀'과 '쓰기'다.

49. 사랑하면, 말씀을 실천하고 늘 써라.

50.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일'에 쓰고, '자기 일'에 쓰고, '합당한 일'에 써야 된다. 자꾸 써야 된다. 못해도, 쓰러져도 자꾸 일을 시키고 써야 된다.

51.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말씀'을 껴안고 살아라.

52. <말씀>을 사랑하며 살도록 해라.